

# 차량 빼앗고 구속한다고 해도 정신 못차리는 상습음주운전

검경 7월부터 엄단 의지 밝혔지만  
여수 6회 적발된 70대 차량 압수  
장흥 9회 전력 50대 징역 2년형  
광주·전남 음주운전 매년 1만건  
법령 홍보·단속 횡수 강화 등 필요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빼앗기고 구속돼도 핸들을 잡는 큰 상습 음주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다. 관대한 처벌 때문에 음주운전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검찰과 경찰이 상습음주운전 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고 인신 구속에 나섰다. 법원도 양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상습음주 운전자를 법정 구속하고 있으나 고질적 상습음주 운전이 줄지 않고 있다.

여수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A(71)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화물차를 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광주·전남지역 4번째 차량 압수자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10분께 여수시 화양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편도 1차로에서 보행자 B(76)씨를 보지 못하고 충격해 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46%에 달했고 조사결과 2015년 이후 6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운전면허조차 없었다.

지난 달에는 총 9차례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3월 장흥군 장흥읍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 상태로 4km 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지난달 담양군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차

된 차량 1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 C씨도 화물차를 압수당했다. C씨는 6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법원도 상습음주 운전이 철폐를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8일 밤 11시 20분께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시청 방면으로 약 800m 거리를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는 0.093%) 한 혐의로 기소된 D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D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2016년 4월엔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2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까지 해 도주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E씨도 구속됐다.

그는 지난 5월 1일 밤 11시 30분께 보성군의 사무실에서 화순까지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2%)을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가족 생계에 문제가 생긴다며 법정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지만 재판부는 "진인척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된다"고 꾸짖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만 37건이었던 광주·전남 음주운전으로 적발건수는 2021년 9738건에서 지난해 1만 274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광주·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7412건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민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7월부터 검·경이 상습음주운전자 대상 차량 몰수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음주 운전 행태가 줄지 않고 있다. 법령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단속 횡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경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 몰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은행 터는 계절 18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광주시 동구청 직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은행나무 열매를 털어내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여성 환경미화원 성추행 아파트 관리소장 항소심도 징역형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성 환경미화원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3)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A씨는 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아파트 여성 환경미화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환경미화원들이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심장이 두려워 쉽게 거부하거나 신고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포함하는 것일 뿐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측 항소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횡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A씨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생 훈계 중 머리 밀친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교실에서 장난치는 학생을 훈계하면서 머리를 밀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남부경찰은 광주시 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6월 30일 교실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는 학생 B군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밀치고 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B군을 훈계하던 중 손이 스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사 결과 머리를 밀는 행위가 있었고 학생의 정서발달에 해로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무단 형질 변경한 건축물 수해 발생했다면? 광주지법 “지자체 피해 배상책임 없다” 판결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지은 건축물에 수해가 발생했다면 지자체의 피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합소2부(부장판사 이흥권)는 A 농업법인이 장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법인은 장성군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던 지난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빗물이 유입돼 버섯 재배시설이 손상되는 피해를 봤다.

해당 법인은 장성군이 집중호우시 제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무원도 방호조치의무를 소홀히 한 직무수행상 과실이 있다며 1억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A법인이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흙을 쌓고 건물을 지었다. 하지만 배수시설이나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제방 바로 밑에 건축물을 지었다"면서 "장성군이 배수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거나 수해대비 조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7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